

# “호우 피해 신속한 복구” 여야 모처럼 한 목소리

### 국힘 “추가 피해 선제적 예방”

### 민주 “복구작업 힘 보태겠다”

### 윤 대통령 폴란드 화상 점검회의

여야는 16일 집중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현지시간) 순방국인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호우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특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구조 작업에 군·경찰·소방·지자체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조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시 대피 중인 분들께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정부는 과하다 싶을 만큼 폭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철 등 낮은 지대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더는 폭우와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하며, 재산 피해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상황 대비와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빠른수록 효과적이다.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비상 체제를 갖추고, 모든 지역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화상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영록, 행정력 겸비 ‘호남정치 지도자’ 부각

### 전남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 민선8기 내내 전국 단체장 1위

### 현장행정·소통 리더십...실속있는 정책 신선한 지도력 호평

김영록 전남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현장에 대한 면밀한 파악, 상하좌우 소통의 리더십 등이 도민들의 지지를 얻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지지세가 정체되면서 이철우 경북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2위 그룹이 따라붙었지만 지난 6월 김 지사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격차를 더 벌렸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6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68.6%로 70%에 다가섰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긍정평가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60.8%)로, 이 지사는 지난 5월 62.8%에서 2%p 하락했다. 3위는 김관영 전북지사(60.5%), 4위 김동연 경기지사(55.3%), 5위 김두겸 울산시장(55.0%), 6위 박형준 부산시장(52.7%), 7위 박완수 경남지사(52.6%), 8위 김진태 강원지사(52.5%), 공동 9위 김태흠 충남지사·홍준표 대구시장(5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측은 지난 5월부터 10월 내 상위권만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첫 평가에서 71.5%를 얻은 데 이어 8월 70.4%, 9월 68.4%, 10월 69%, 11월 67.6%, 12월 68.7%, 1월 72.6%, 2월 67.9%, 3월 67.1%, 4월 63.7%, 5월 62.9%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앞서 민선 7기에서도 43개 월 중 30개 월 동안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가 이처럼 유례없는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으로 중앙·지방 행정, 중앙·지방 정치 등을 모두 섭렵해 정책 수립 및 집행,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의견 수렴 및 소통 등에서 강점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분한 성격으로, 언행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논란도 없었다. 요란한 구호보다 실속 있게 지역 곳곳을 챙기는 현장 행보도 도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연일 극한호우가 계속되자 지난 15일 밤 실극장 회의를 소집하고, 밤새 도내 곳곳의 위험지역을 살펴본 뒤 16일에는 산사태가 발생한 해남을 방문하는 등 오랜 공직 경험은 위기·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하



고 있다.

리얼미터 2023년 6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5월 26일-5월 31일, 6월 26일-30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3%p, 응답률은 3.2%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 등 인도적 지원 확대

### 대통령실 브리핑...“안보·인도·재건 등에 9개 지원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의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의 프레스센터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뢰 탐지기 제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요가 절박하리만큼 커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히로시마 주유 7개국(G7) 정상회의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향후 재건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번 방문 이후 안보 분야 3가지, 인도 분야 3가지, 재건 분야 3가지 9개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9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직후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재건 사업을 통한 경제적 실리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15일) 양국 정상이 발표한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200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어 양국에 모두 ‘윈윈’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기업이 ‘윈윈’으로 이룬 세일즈 외교의 성과”라며 “기술 강국, 자유 진영 최전선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전쟁 참상으로 얼룩진 최빈국에서 당당하게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한반도 역사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일지 모른다”라고도 했다.

이어 “한강의 기적처럼 드니프로강의 기적도 반드시 이뤄질 믿는다”는 윤 대통령 메시지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기도한다”며 “감히 이순신 장군 동상을 내걸면서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매국노의 망언을 내뱉는 이재명 같은 비겁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